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 2016 여름휴가 국내여행경비, 4조8백억 썼다

- 여행수지 1위는 강원도 -

- ▶ '16년 12월 26일(월) 배포
- ▶ 자료 총 5매

기 관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
책 임	김형곤 소장/Ph.D/대학원 교수
문 의	문지효 선임연구원/Ph.D
이 메 일	moonjh@consumerinsight.kr
연 락 처	02) 6004-7631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 공동기획>

### 여름휴가 국내 여행경비, 평균 22만1천원

- 목적지에서 쓰는 비용 총 여행경비의 65%, 14만4천원
- 여행수지 흑자 가장 큰 곳은 강원도와 제주도
- 여행수지 적자 가장 큰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
- 부산 제외한 특별/직할시는 여름휴가 여행 사각지대

우리나라 국민의 46%가 지난 여름휴가 시즌(6월-8월)에 1박 이상의 국내여행을 다녀왔으며, 1인 평균 22만1천원을 여행경비로 지출했다. 20세 이상이 여행경비로 지출한 총비용은 4조826억으로 추정된다. 여행수지 흑자가 가장 큰 곳은 강원도와 제주도, 적자가 가장 큰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였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 기획하여 실시한 대규모 ‘2016 여름휴가 여행조사’(자료수집: 방법;온라인/모바일, 기간;2016년 9월 23~31일, 표본규모;25,729명)에서 지난 여름휴가 시즌(6~8월) 3개월 사이에 국내 또는 해외로 1박 이상의 여름휴가 여행을 다녀왔는지 물었다. 표본내에서 해외로 다녀온 비율은 19%였으나, 해당 기간 중의 출국자 수를 외적준거로 삼아 모수 추정 한 해외여행률(21세 이상)은 11%였으며, 이를 토대로 추정한 국내여행률은 46%였다. 이상의 기준으로 국내 여름휴가 여행객의 이동실태와 여행비 지출실태를 분석했다.

**▲이동 실태;** 조사 표본내 국내 여름휴가 여행자 1만9천78명의 이동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거주지(출발지)와 여행지(주목적지)를 16개 광역시/도(세종은 충남에 포함)별로 보았다. 주목적지로는 강원이 26.3%로 전체의 1/4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제주 9.6%, 경남 9.1%, 경기 8.9%, 경북 7.8%등 모두 10%에 미치지 못했다[표1-A]. 부산을 제외한 특별/직할시는 여름휴가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서울은 2.5%로 11위에 그쳤고, 인천, 울산, 대구, 대전, 광주는 최하위권이었다. 부산을 제외한 6대 도시의 합은 7.9%에 그쳐, 부산(7.3%) 하나와 별 차이가 없었다.

출발지는 서울이 27.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경기 24.7%, 부산과 인천(각각 6.6%),

대구 5.2%의 순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5% 미만이었으며, 제주가 0.5%로 가장 작았다[표 1-B]. 전체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했다.

<표 1> 지역별 여행객수와 여행경비(조사표본)

	A. 목적지별 내방객 수			B. 출발지별 여행객 수			C. 목적지별 여행경비		D. 목적지내 여행경비	
	순위	명 (19,078)	% 100	순위	명 (19,078)	% 100	순위	만원[1인당] 22.1	순위	만원[1인당] 14.4
강원	1	(5,017)	26.3	13	(424)	2.2	5	20.6	4	14.2
제주	2	(1,838)	9.6	16	(100)	0.5	1	46.5	1	27.6
경남	3	(1,727)	9.1	6	(856)	4.5	7	19.2	6	12.7
경기	4	(1,692)	8.9	2	(4,721)	24.7	16	15.8	15	10.7
경북	5	(1,489)	7.8	9	(598)	3.1	8	19.1	7	12.7
전남	6	(1,443)	7.6	14	(347)	1.8	4	20.7	5	13.6
부산	7	(1,396)	7.3	3	(1,259)	6.6	2	26.0	2	16.3
충남	8	(1,358)	7.1	10	(561)	2.9	12	16.7	13	11.0
전북	9	(961)	5.0	12	(490)	2.6	9	18.0	9	11.8
충북	10	(640)	3.4	11	(534)	2.8	15	15.9	12	11.0
서울	11	(476)	2.5	1	(5,311)	27.8	3	23.8	3	15.4
인천	12	(439)	2.3	4	(1,252)	6.6	14	15.9	16	10.5
울산	13	(225)	1.2	15	(335)	1.8	13	16.3	14	11.0
대구	14	(157)	0.8	5	(984)	5.2	6	19.8	8	12.2
대전	15	(137)	0.7	7	(704)	3.7	11	16.8	10	11.7
광주	16	(83)	0.4	8	(601)	3.2	10	17.3	11	11.3

▲여름휴가 비용; 1인당 평균 여행경비는 22만1천원이었으나, 목적지별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가장 큰 곳은 제주도로 평균 46만5천원이었다[표1-C]. 대부분이 항공편을 이용하고, 일정이 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평균의 2배가 넘는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그 다음은 부산 26만원, 서울 23만8천원, 전남 20만7천원의 순이었다. 충북과 경기, 인천은 15만원대로 제주도의 1/3 수준의 비용만으로 찾은 곳이었다.

▲목적지내 지출 비용; 여행경비의 모두를 주목적지에서 쓰이는 것은 아니다. 각종 준비, 이동, 경유지 지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비용이 전체의 35%를 차지했으며, 실제 목적지에서 쓴 비용은 65%인 14만4천원이었다[표1-D]. 목적지내 지출이 가장 큰 곳은 제주도로 평균의 2배에 이르는 27만6천원이었으며, 그 다음은 부산 16만3천원, 서울 15만4천원의 순이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타 지역의 2배에 이르는 체류 비용은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다. 반면 경기도, 인천 등 8개 시도는 1인 평균 12만원 이하의 비용을 썼다.

▲추정 총 지출액; 본 조사의 표본 1명은 20세 이상의 성인 967명을 대표한다. 각 표본이 지출한 비용에 이를 곱한 후 합산한 값이 ‘추정 총 지출액’이며, 4조826억원이었다[표2-A]. 즉, 지난 여름휴가 시즌에 전국민(20세 이상)이 1박 이상의 여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4조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거주자의 지출이 1조2342억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가장 컸고, 그 뒤를 경기 9천873억(24.2%), 부산 2천629억(6.4%), 인천 2

천622억(6.4%)이 따랐다. 지역별 구성비는 휴가객수 구성비(표1-B)와 거의 차이가 없다.

▲목적지내 지출액; 여비와 준비비 등을 제외한 목적지내에서의 순지출은 총 지출의 65%인 2조6636억이며, 출발지별 지출액도 모두 65% 수준으로 차이가 없었다[표2-B]. 출발 지역 별로 보면 서울 거주자가 목적지내에서 쓴 비용이 8천109억으로 전체의 30.4%를 차지하며 가장 컸고, 그 뒤를 경기 6천459억(24.3%), 인천 1천739억(6.5%), 부산 1천644억(6.2%)이 따랐다.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이 전체의 61%를 감당했다.

▲목적지의 수입액; 이 금액은 여행 주목적지에서 지출한 비용의 총합으로 각 여행지의 순수익이라 할 수 있다. 여행 목적지의 수입을 보면 강원이 6천885억(25.8%)으로 1위, 제주가 4천908억(18.4%)으로 2위를 차지하며 전체 수입의 44%를 차지했다[표2-C]. 그 다음은 부산 2천197억(8.2%), 경남 2천121억(8.0%), 전남 1천891억(7.1%)의 순이었다. 7개 특별/직할시 중 부산을 제외한 6개 대도시는 다 합친 수입이 2천억에도 미달해 부산시 하나에도 미치지 못했다.

<표 2> 지역별 여행 수입과 수지 추정(모수 추정)

지역	출발지별 여행경비 [모수, 단위:억]						수입액 [모수, 단위:억]				
	순위	A. 총 여행경비	%	순위	B. 목적지내 여행경비	%	순위	C. 총 수입	%	순위	D. 여행 수지 (C-B)
계		40,826	100		26,636	100		26,636	100		
강원	13	860	2.1	13	588	2.2	1	6,885	25.8	1	6,297
제주	16	318	0.8	16	171	0.6	2	4,908	18.4	2	4,737
경남	6	1,737	4.3	6	1,118	4.2	4	2,121	8.0	5	1,003
경기	2	9,873	24.2	2	6,459	24.3	7	1,757	6.6	15	-4,702
경북	9	1,216	3.0	8	801	3.0	6	1,823	6.8	4	1,022
전남	14	767	1.9	15	472	1.8	5	1,891	7.1	3	1,420
부산	3	2,629	6.4	4	1,644	6.2	3	2,197	8.2	7	553
충남	10	1,167	2.9	10	745	2.8	8	1,445	5.4	6	700
전북	12	1,026	2.5	12	670	2.5	9	1,097	4.1	8	427
충북	11	1,039	2.5	11	675	2.5	11	681	2.6	9	7
서울	1	12,342	30.2	1	8,109	30.4	10	711	2.7	16	-7,398
인천	4	2,622	6.4	3	1,739	6.5	12	447	1.7	14	-1,292
울산	15	705	1.7	14	481	1.8	13	239	0.9	10	-242
대구	5	1,895	4.6	5	1,242	4.7	14	186	0.7	13	-1,056
대전	7	1,385	3.4	7	953	3.6	15	155	0.6	12	-798
광주	8	1,244	3.0	9	769	2.9	16	90	0.3	11	-678

▲지역별 여름휴가 여행수지; 여행수지는 각 지역이 얻은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값이다. 주요 지역의 여행 수지를 보면 강원이 6천297억으로 1위, 제주가 4천737억으로 2위를 차지하며 전체 수입의 40% 이상을 가져갔다. 그 다음은 전남이 1천420억, 경북 1천22억, 경남 1천3억의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7천398억, 경기도는 4천702억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과 경기도가 1조1천억을 내고, 그것의 대부분을 강원도와 제주가 가져간 것과 같다.

▲주요 지역간의 여행 수지; 수지의 흑자 폭이 가장 큰 강원은 제주를 제외한 전지역에 대해 흑자를 거뒀으며, 제주는 유일하게 모든 지역에 대해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유일하게 광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적자를 기록했다. 각 시도간 여행수지를 보면 득실관계를 알 수 있다. 흑자 수지가 가장 큰 관계는 강원-서울 간으로 강원이 2천502억의 흑자였으며, 그 다음은 강원-경기로 2천123억, 제주-서울의 1천695억, 제주-경기의 1천75억의 순이었다[표3]. 이외 부산, 전남 등 여행수지 흑자인 지역 모두에게 있어서 1등 공신은 서울, 그 다음은 경기였다[붙임 1].

<표 3> 여행수지 TOP 10

목적지	(출발지)	여행수지 [모수, 단위·억]
강원	(서울)	2,502
강원	(경기)	2,123
제주	(서울)	1,695
제주	(경기)	1,075
부산	(서울)	657
강원	(인천)	525
경기	(서울)	503
전남	(서울)	412
부산	(경기)	393
전남	(경기)	375

이 조사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 최성수기인 여름휴가 시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대규모 연구라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이 있다. 여행객의 이동패턴을 16개 시도간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출과 수입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전례 없는 자료다. 각 시도의 여행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수추정에 있어서는 표본틀과 응답률 등이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고, 19세 이하와 당일여행을 반영하지 않아 과소 추정의 가능성이 있는 등 몇몇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를 조감해 볼 수 있고, 향후 보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 연구 및 조사방법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기획하여 지난 6~8월 사이에 다녀온 1박이상의 여름 휴가 여행에 대한 경험과 평가를 조사했다. 컨슈머인사이트의 80만 IBP(Invitation Based Panel)를 표본틀로 하여 2만5천7백명을 조사했으며, 표본추출은 인구구성비에 따라 성·연령·지역을 비례할당했다. 자료수집은 이메일과 모바일을 사용했다.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의  
 보도자료는 인터넷([www.consumerinsight.kr/travel](http://www.consumerinsight.kr/travel))에 수록되어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김민화 연구원(컨슈머인사이트 책임연구원)/Ph.D  
 정경식 컨슈머인사이트 선임연구원/Ph.D  
 문지효 컨슈머인사이트 선임연구원/Ph.D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jungks@consumerinsight.kr 02)6004-7627  
 moonjh@consumerinsight.kr 02)6004-7631

\* 발표자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붙임 1]

여름휴가 여행수지 Matrix ; 목적지내 경비 기준 차이(수입-지출)

(단위: 억원)

		출발지 (지출)															
		강원	제주	전남	경북	경남	충남	부산	전북	충북	울산	광주	대전	대구	인천	경기	서울
총여행수지		6297	4737	1420	1022	1003	700	553	427	7	-242	-678	-798	-1056	-1292	-4702	-7398
목적지 (수입)	강원	-	-64	6	112	113	111	158	79	153	61	90	167	162	525	2123	2502
	제주	64	-	53	135	167	126	316	104	86	80	133	199	202	304	1075	1695
	전남	-6	-53	-	15	64	27	54	28	33	25	229	74	61	81	375	412
	경북	-112	-135	-15	-	51	25	106	6	27	55	20	51	282	80	243	337
	경남	-113	-167	-64	-51	-	46	317	2	29	47	36	65	146	80	297	334
	충남	-111	-126	-27	-25	-46	-	-29	14	41	9	36	117	21	121	348	357
	부산	-158	-316	-54	-106	-317	29	-	20	16	-2	78	58	151	103	393	657
	전북	-79	-104	-28	-6	-2	-14	-20	-	12	11	38	56	23	56	213	269
	충북	-153	-86	-33	-27	-29	-41	-16	-12	-	4	9	14	17	51	129	180
	울산	-61	-80	-25	-55	-47	-9	2	-11	-4	-	0	7	7	-4	21	17
	광주	-90	-133	-229	-20	-36	-36	-78	-38	-9	0	-	3	-5	4	-7	-6
	대전	-167	-199	-74	-51	-65	-117	-58	-56	-14	-7	-3	-	1	5	2	6
	대구	-162	-202	-61	-282	-146	-21	-151	-23	-17	-7	5	-1	-	-7	6	15
	인천	-525	-304	-81	-80	-80	-121	-103	-56	-51	4	-4	-5	7	-	-14	121
	경기	-2123	-1075	-375	-243	-297	-348	-393	-213	-129	-21	7	-2	-6	14	-	503
서울	-2502	-1695	-412	-337	-334	-357	-657	-269	-180	-17	6	-6	-15	-121	-503	-	

\* '-'는 적자를 의미함